

세계가 인정하는 최첨단 기술이 경쟁력

세주엔지니어링(주)

세주엔지니어링(주)



세주엔지니어링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인 MEMS기술과 뛰어난 재조정 기술(Re-Calibration Function)을 인정받아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등의 대부분의 북미, 유럽 선진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세주엔지니어링(이하 세주)은 자체 연구진과 대학연구단지와 연계로 고도의 반도체 기술을 축적하여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업체로 1997년에 설립되었다. 세주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인 MEMS(반도체 미세가공 기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나노기술에 의한 MEMS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로서, 제품이 더욱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기술이며, 세주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가스센서, 휴대용 음주 측정기, 가스감지

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세주는 처음으로 나노/MEMS기술을 센서에 적용시켰으며, 정확도 높은 알코올·가스센서를 중국보다 싼 가격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다. 또한 MEMS 가스센서는 사이즈가 2×1mm밖에 되지 않아 제품의 초소형화를 앞당기고 있다. 이에 따라 세주의 음주측정기 사이즈도 매우 작게 만들어 졌으며 세주는 앞으로 휴대폰에도 음주측정 기능을 적용시킬 계획을 가지고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세주엔지니어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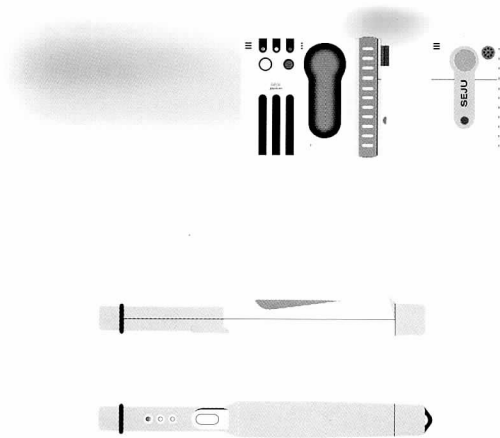
또 하나 세주가 자랑하는 핵심적인 기술로 재조정(Re-Calibration Function)이 있다. 휴대용 음주측정기는 경찰 용과는 다른 가스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날씨나 기온 등의 주위 환경이 바뀌면 그 영향을 적지 않게 받으므로 정기적으로 재조정을 해주어야 한다. 만약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음주 측정값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어 엉뚱한 값이 나오기도 한다. 세주의 제품은 사용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숨을 주입구에 불어넣음으로써 제품의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졌다. 이러한 셋팅 방법은 세계 휴대용 음주측정기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수많은 업체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휴대용 음주측정기의 정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주는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등의 대부분의 북미, 유럽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연간 15회 이상 해외 유명전시회(Cebit, Comdex, CES등)에 참가하여 많은 바이어들과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하고 있다.

세주의 가스감지기는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길다란 스틱형의 Safe-Gas1과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허리에 차고 일할 수 있는 허리부착형의 Safe-Gas2가 있다. 녹색, 노란색, 빨간색의 3가지 색상의 LED와 '삐' 소리로 가스누출의 정도를 알리기 때문에 사용자는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다.

이 가스감지기는 2004년 가을 출시 예정으로 세계 가스감지기 시장 규모와 세주의 기술력을 감안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 세주엔지니어링이 올해 가을 출시 예정으로 개발중에 있는 스틱형 가스감지기

세주엔지니어링의 이원배 대표

1980년 서울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6년 한국항공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89년 미국 LACC Electric engineering에서 수석한 바 있는 엔지니어 출신의 대표이사이다.

이원배 사장은 89년 일본계 미국회사 O.C.S 입사하여, 92년까지 회사 생활을 한 후 94년 미국 CA Orange Country에 Kotech를 설립했으며, 95년 세주실업(주)을 설립, 97년에 지금의 세주엔지니어링(주) 설립하고 대표이사의 자리에 앉았다. 이후 (주)풍산과 지폭신관(S.D.F)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8년에는 같은 회사와 지폭신관 양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원배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답게 다양한 개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1996년 국방과학연구소 무인항공기 개발에 참여 (Data link system개발-RPV Project)한 것을 시작으로, 97년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고압선 위 새 쫓는 장치를 개발하는 한편 이듬해인 98년에는 Reserve Battery와 초소형 음주측정기를 개발하였다. 99년에는 초소형 충격센서를 2000년에는 Gas Sensor도 개발한 바 있다.



대표이사 이원배 (만41세)